

〈제 756호〉

#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광주은행

#### ◆대불산단 근로자 공동세탁소에 운송차량 기증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2일, 광주학생 독립운동 94주년을 맞아 전남여자고등학교 광주 학생독립운동 여학도기념역사관에서 광주은행 김인수 부행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멕시코·쿠바 한인 후손을 위한 1천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복 보내기 운동은 광주은행을 포함한 광주지역 경제단체와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한복 300여벌을

모아 독립운동을 지지·후원한 기록이 확인된 멕시코 메리다 한인후손회와 쿠바 호세마르티 한인후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김인수 부행장은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임시정부 재정과 독립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한인 후손들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억해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사회를 넘어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절세닥터 IRP 이벤트 실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개인형 IRP(개인형퇴직연금) 고객을 대상으로 ‘절세(絶稅)닥터 IRP’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절세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200만원 확대 시행됨에 따라 고객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형 IRP 신규(적립/퇴직) ▲추가입금 및 연금계좌이체 ▲TDF (Target Date Fund) 판매·운용, 총 세 가지 부문으로 진행한다.

광주은행 고병일 은행장은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절세에 대한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님의 퇴직연금 자산을 더욱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수익률을 제고하는 등 최고의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은행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 광주신세계

#### ◆개점 28주년 김장 봉사



광주신세계(대표 이동훈)가 개점 28주년을 맞아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담그기’ 봉사 활동에 나섰다.

12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10일 광주김치타운에서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장 담그기 봉사 활동을 펼쳤다. 특히 광주김치타운에서 진행돼 광주김치 명인이 전문강사로 나서 이론교육부터 김장 시연까지 선보여 보다 전문적이고 좋은 원재료를 사용해 더욱 품질 좋은 완제품을 전달할 수 있게 돼 그 의미를 더했다.

### 광주테크노파크

#### ◆기관합동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김영집)는 최근 ‘2023년 광주창업페스티벌 내 세부행사’의 일환으로 전남대 기술지주회사(주)(대표 민정준), (주)이디리서치(대표 서주원)와 함께 기관합동 투자유치 설명회(IR)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신규 투자펀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해 총 10개의 세분화된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최소 300억원 이상 결성 가능한 시리즈 A 단계 1호의 경우 지난 10월 운용사 선정을 마치고 연내 펀드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창업기업들의 생존과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투자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창업성장사다리펀드를 비롯한 민선 8기 5000억 펀드 조성이 지역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마중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

### ◆광주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산업현장 릴레이 안전캠페인 전개



광주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단장 양정열 광주 지방고용노동청장)은 1일 안전일터 조성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배전공사 현장(전남 무안군 소재)에서 합동 산업현장 릴레이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의 산업현장 릴레이 캠페인은 광주 관내 사망사고를 줄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은 지난 7월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안전 결의대회의 일환이다.

안전보건공단 김무영 광주광역시본부장은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광주 관내 사망사고를 줄이고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한국식품연구원에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서 수여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본부장 김무영)는 6일 전주 혁신도시 내입주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형희)에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우수사업장 선정서를 수여했다.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우수 사업장 선정’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노·사가 자율적으로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 활동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일련의 활동내용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김무영 광주광역시본부장은 “최근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추진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며, 한국식품연구원의 추진활동 사례가 널리 전파되어 더 많은 공공기관 및 사업장에서 직무 및 현장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추진을 기대한다.”며, “공단도 공공기관 및 사업장의 건강증진활동 추진을 위한 내·외부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 각종 프로그램 및 타 사업장의 벤치마킹 기회부여 등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전남대학교 병원

### ◆전남대병원, 의료경영아카데미 운영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은 2일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과 '의료경영아카데미'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전남대병원 의료진은 의료경영아카데미에서 병원 경영에 필수적인 경영지식을 배울 예정이다.

전남대병원 안영근 병원장은 "외국대학에서는 의료경영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찾아보기 힘들다"며 "의료경영아카데미를 통해 의료 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의사과학자' 양성 연구프로그램 지원



전남대학교병원(원장 안영근)은 7일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 과학자(MD-Ph.D)는 임상 지식과 역량을 융합해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등에 특수한 시각을 제공하는 연구자를 뜻한다.

안영근 병원장은 "학부생부터 전공의, 임상교수까지 단계적 지원으로 연구 의욕을 고취하는 동시에 전남대병원의 연구역량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 한전KPS

### ◆ 치매보듬마을 환경개선 앞장



발전·송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주)한전KPS 안동사업소가 치매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마을의 생활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자 치매보듬마을인 길안면 천지 2리와 풍산읍 매곡1리에 3개월간 1200만원 상당의 화재예방 설비와 물품을 기부했다.

### ◆ 산내동에 전기매트 후원



발전·송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기 한파로 어려움이 있는 주거취약 가구를 위해 전기매트 20개를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한전KPS(주) 대외사업센터는 산내동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폭염취약가구 냉장고 지원, 추석맞이 지역 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 다양한 후원으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으나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수 용 대리

○ e-mail : gjef3425@naver.com

### <제1627회 금요조찬포럼>

#### 사마천, 리더의 길을 묻다

(김영수 교수)

1627회 금요조찬포럼은 김영수 영산 원불교대학교 교수를 초청하여 「사마천,」을 주제로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리더들은 역사책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역사 공부를 하면 두 가지 선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째, 상황 대처 능력입니다. 역사는 수많은 경우의 수의 나열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원인, 경과,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세히 분석한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리더의 입장에서 앞으로 내가 부딪혀야 할 문제들과 비슷한 경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역사적 사건을 생각하고, 분석하고, 통찰하며, 의문을 제시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내가 부딪힐 문제에 관한 해답이 나옵니다.

둘 째, 미래를 위한 나침반을 하나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사건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리더가 갖춰야할 자질 중 한가지인 공사구분의 정신을 관포지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관포지교는 관중과 포숙의 이야기로 두터운 우정을 나누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관포지교에서는 우정, 인간관계, 리더십, 은원 관계, 인재에 관한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공사구분 역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관중은 제 나라의 재상으로 40년간 국정 전반을 주도합니다. 춘추전국시대 제나라를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든 일등 공신입니다. 관중이 죽기 직전에 임금이 관중을 찾아가 후임자를 논의 합니다. 근데 관중은 여기서 포숙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깜짝 놀라 그럼 포숙은? 이라고 반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들은 간신배가 포숙에게 관중이 본인을 추천하지 않은 걸 이야기 해줍니다. 그 때 포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관중을 추천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두 사람의 관포지교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공사 구분 정신입니다.

또한, 리더의 메시지는 간결하고 친근해야 합니다. 유방이 항우를 물리치고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대단히 쉬운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진나라의 번거롭고 가혹한 법률을 다 없애버리고 3가지 조항만 남기겠다.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하고, 상처를 입히거나 물건을 훔치면 그에 따르는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 대중에게 쉽고 간결한 메시지로 역사의 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리더는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정나라의 정치가 자산의 말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나는 배운 다음 벼슬한다는 소리는 들어 보았어도 벼슬한 다음 공부한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 1. 경제 동향

### ◆ 경총, 「매출 50대 기업 재택근무 현황 조사」 결과 발표 (11.6)

- 경총은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현황에 관해 「매출 50대 기업 재택근무현황 조사」 실시

※ 본 조사는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공기업 제외, '22년 기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응답 기업 수는 31개사

#### 〈 주요 내용 〉

- (재택근무 시행 현황) 재택근무 시행 기업 58.1%, 미시행 41.9%
  - 미시행 응답 기업은 '코로나 이후 시행한 적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음' 38.7%, '지금까지 시행한 적 없음' 3.2%로 구성
- (재택근무 시행 방식) 현재 재택근무 실시 기업도 시행 규모는 축소
  - '필요인원을 선별하거나 개별 신청' (61.9%)하는 방식을 가장 많은 기업에서 활용, 그외 '교대순환형', '부서별 자율 운영' 각각 19.0%
- (재택근무 축소·중단 과정에서 근로자 반대 여부) '반대 거의 없었다' 라고 응답한 기업 50.0%
  - 이 밖에 '일정부분 반대가 있었으나, 정도가 강하지 않았음' (36.7%), '강한 반대가 있었음' (10.0%), '무응답' (3.3%) 순으로 조사됨.
- (재택근무 향후 전망)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 이라는 응답 많아(64.5%)
  - 이외에 '코로나19 이전보다는 확대될 것이나 제한적일 것(25.8%)',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확산될 것(9.7%)' 순 응답

### ◆ KDI, 「경제전망(2023.하반기)」 발표 (11.9)



### Ⅲ. 노동경제동향

○ KDI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23년 1.4%, 2024년 2.2%로 전망\*

\* 2023년 8월 성장률 전망치 대비 2023년은 0.1%p 하향 조정, 2024년도 0.1%p 하향 조정

- 2024년 경제성장률이 2% 내외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겠으나, 이는 2023년의 낮은 성장률(1.4%)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기인한바, 경기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 (민간소비) 고금리 기조로 인한 상품소비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2024년에도 전년 (1.9%)과 유사한 1.8%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

- (투자) 2024년 설비투자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겠으나, 수출의 완만한 회복과 2023년(0.2%)의 기저효과로 인해 2.4%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건설투자는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한 건설수주의 위축을 반영하여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수출)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품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비스수출도 여행수요의 점진적 회복에 따라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 2024년 상품수출은 반도체 수요 확대에 주로 기인하여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 상품수입은 설비투자와 상품수출의 증가세 확대에 따라 2.8%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물가) 2024년 소비자물가는 내수 증가세 둔화로 인해 2023년(3.6%)보다 낮은 2.6%의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

※ 근원물가도 수요 둔화의 영향이 점차 반영되며 2023년(3.5%)보다 낮은 2.4% 상승할 전망

○ (경상수지) 2024년 경상수지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흑자폭이 2023년(319억달러)보다 확대된 426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고용) 취업자 수는 2023년(32만명)보다 축소된 21만명 증가하고, 실업률(2.7% → 3.0%)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Ⅲ. 노동경제동향

#### 〈 전망의 위험요인 〉

-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거나 중국의 부동산경기가 급락하는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여타 중동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생산비용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음.
  - 중국 부동산경기가 급락하면서 중국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실물투자가 크게 둔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음.

#### ◆KDI, 「중국의건설업위축의영향과중장기무역구조변화의시사점」 보고서발표(11.8)

- KDI는 11월 8일 「중국의 건설업 위축의 영향과 중장기 무역구조 변화의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여 최근 부각되고 있는 중국 건설업 위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을 분석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상에서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의 시사점을 도출

#### 〈 보고서 주요 내용 〉

- 중국 건설업생산 감소는 對중국 중간재수출 감소를 통해 우리나라 GDP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중국 건설업생산이 10% 감소하면 우리나라 GDP는 0.4%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산업별로는 건설자재 생산 및 운송과 밀접한 화학산업, 광업, 해운업,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에서 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중국 건설업생산 10% 감소가 우리나라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0.7, [광업 및 채석업] △0.6, [수상운송업] △0.6, [전기 및 광학장비] △0.4 등

- 중국의 중간재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과 중국 간 국제분업 관계가 약화되는 가운데 해외 중간재시장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짐.
- 중국과의 국제분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뚜렷한 단기 대책을 찾기는 어려우나, 수출 및 투자시장 다변화 등을 통한 위험 분산 전략은 지속적으로 추구할 필요

### Ⅲ. 노동경제동향

- 또한, KDI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구조 개혁도 지속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궁극적으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한 긍정적 효과는 기업경쟁력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진입장벽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제도 개편 등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역동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 ◆ 한국은행, 「2023년 9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11.8)

- 2023년 9월 경상수지는 54.2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22년 9월(20.9억달러) 대비 흑자 폭이 33.3억 달러 확대
  - ※ 경상수지 추이(억달러, 한국은행) : 19.3(23.5)→ 58.7(6)→ 37.4(7)→ 49.8(8)→ 54.2(9)
  - ※ 2023년 1~9월 누적 경상수지는 165.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22년 1~9월 누적 경상수지(257.5억 달러 흑자) 대비 흑자 규모가 91.7억 달러 감소
- 상품수지는 74.2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7.5억달러 흑자) 대비 흑자 규모가 확대
  - ※ 상품수지는 2023년 4월(5.8억달러 흑자) 이후 6개월 연속 흑자 기록. 2023년 9월 상품수지 흑자규모(74.2억달러)는 2021년 9월(95.4억달러 흑자) 이후 최대치.
- 서비스수지는 31.9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9.8억달러 적자) 대비 적자 규모가 확대
  - ※ 서비스수지는 2022년 5월(1.5억달러 적자) 이후 17개월 연속 적자 기록
-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15.7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27.0억달러 흑자) 대비 흑자 규모가 축소
- 이전소득수지는 3.8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3.8억달러 적자) 대비 적자 규모가 동일

- 2023년 9월 금융계정은 45.2억달러 순자산 증가 기록

#### ◆ 기획재정부,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발표 (11.8)

### Ⅲ. 노동경제동향

○ 정부는 11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함.

- 정부는 ①과도한 규제 및 투자 여건 애로, ②행정절차 지연, ③발주처-사업자 간 분쟁 등 3가지 형태의 애로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18건 최대 약46조원 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애로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 주요 내용 〉

① (투자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건설,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 연구개발특구 개발, 전남 해상풍력 발전, 영천 경마공원 건립 등

② (행정절차 Fast-Track 추진) 하남 K-POP 공연장(The Sphere) 설립,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부산 세계적 미술관 분관 건립,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등

③ (사업분쟁 조정·중재) 고양 K-컬처밸리 조성, 고양 관광숙박시설 건설, 인천 검단신도시 역세권 개발,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 덕산 일반 산업단지 조성 등

#### ◆ KDB미래전략연구소, 「국내 유연근무제도 도입 현황」 발표 (11.6)

○ 11월 6일 KDB미래전략연구소는 「국내 유연근무제도 도입 현황」 보고서를 발표.

〈 보고서 주요 내용 〉

○ 2017년 국내에 도입된 유연근무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쳐 대기업·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기업별 환경 및 근로자 니즈에 부합하도록 선별적으로 도입 중

\*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한 근무형태를 선택·활용하는 제도로, 일·가정 양립 등 근로자의 요구에 대응하고,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스마트워크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우수인력 이탈 방지 가능

- 국내 임금근로자의 유연근무제도 활용률은 '23.8월 기준 15.6% 수준으로, 팬데믹 종식 이후 재택·원격근무제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하였으며, 시차출퇴근제가 33%의 비율로 단일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Ⅲ. 노동경제동향

-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 감소 등 제도 확대의 어려움이 존재하나,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23.3)에 맞춰 향후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 확산 전망
  - 전통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유지하는 일부 업종 및 직무(공장 생산직, 금융기관 텔러, 교사 등)의 경우 유연근무제 도입 자체에 어려움 존재
  - 유연근무제 도입 이후 앤데믹 및 리스크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유연근무제를 축소\*하거나 철회하는 기업 발생. 전면 폐지보다는 사무실 출근일 확대\*\* 등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경향
    - \* 카카오(격주 출근제 폐지), 야놀자(상시 재택→ 주3회 출근), 엔씨소프트(재택근무 축소) 등
    - \*\* 디즈니, 스타벅스, KPMG는 사무실 근무 비중을 확대, JP모건은 사무실 출근율을 성과평가에 반영
  -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근무 방식을 개선하는 등 유연근무제 확대 노력 지속
    - \* 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2) 근로자 건강권 강화, 3) 휴식권 보장,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등

#### ◆ 통계청, 「'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발표 (11.1)

- 비임금근로자는 672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8천명 증가,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4%로 0.1%p 하락
  - (고용원 유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5만 9천명 증가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3만 4천명 증가, 무급가족종사자는 5만 5천명 감소
  - (산업별) 건설업(3만 6천명), 제조업(3만 1천명) 등에서 증가, 도·소매업(△5만 1천명), 농림어업(△7천명), 예술·스포츠(△6천명) 등에서 감소
-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일자리) 평균 운영(소속)기간은 15년으로 전년동월대비 2개월 증가



### Ⅲ. 노동경제동향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동월과 동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3개월 증가
- 비임금근로자의 평소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4.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1시간 감소함.
- 비임금근로자 중 ‘현재 사업체를 계속 유지할 계획’ 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86.8%로 전년동월대비 2.5%p 하락함. ‘현재 일을 그만 둘 계획’ 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5.3%로 전년동월대비 1.1%p상승

## 2. 노사 동향

### ◆ 노조법 제2조·3조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통과

○ 노조법 제2조·3조 개정안은 야당의 법안 처리 강행으로 11. 9 본회의에서 통과

※여당은노조법제2조·3조개정안표결에불참

- 당초 여당은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 소추안 표결 진행 등을 고려해 필리버스터 철회 결정

○ 경총은 11. 9 야당의 법안처리 강행에 대해 비판하고,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

-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 통과시 사용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하청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

- 또한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고 강조

○ 또한, 경총은 11. 13 ‘노조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 기자회견’에 이어 11. 15 업종별 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

### ◆ 고용부는 노조 조직현황 보고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 노동개혁 추진 지속

○ 고용부는 10. 31 노조 조직현황 통보 서식 구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조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노조 조직현황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을 제고한다는 계획

※ 입법예고기간: 2023. 10. 31 ~12. 11

※ 노조 대표자는 노조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31일까지행정관청에‘노조정기현황통보서’를제출해야함.

### Ⅲ. 노동경제동향

- 노조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조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수를 구분해 행정관청에 통보해야하나, 현행노조 정기현황통보서는 이를 미반영
  - 노조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노조 정기현황통보서를 단위노조와 연합단체인 노조의 작성 사항을 구분해 각 노조에 맞는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임.
- 또한, 고용부는 초기업단위 노조 조직현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노조 조직현황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을 제고한다는 계획
- ※실태조사연구용역기간: 2023년9월~2024년6월
- 고용부는 그동안 노조의 자기보고식 신고의 한계로 초기업단위 노조가 사업장별 산하조직 현황을 기재하지 않는 등 다양한 오류가 발생해 왔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
- 한편, 노동계가 노조 회계 공시 관련 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 법률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노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둘러싼 노정갈등 심화 우려